



강진 김명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일몰제' 대비 착수

광주·전남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 대응

오는 2020년부터 도시근린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투자유치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공원은 다른 용도로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국민의 재산권과 공익성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실효효를 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자로 지정 해제되는 공원은 전국적으로 397㎢이다. 일몰제 시행 이후 녹지와 공원이 소멸되는 등 토지 소유자들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 법률에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공원 개발이 가능토록하는 도시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제정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추진자가 대상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120여개소의 공원이 개발 중에 있다. 지방의 열악한 예산부족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최상의 해결책으로 선택돼 빠르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현재 인근 광주광역시도 10개소를 적용하고 있으며, 목포시도 8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도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 3개소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21

개소 562ha로, 토지 매입비만 1600억원에 달한다.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전액 시 자체 재원으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도 제기된다.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시의회 보고 과정중 하유인 의원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 질의사항에 보존녹지지역(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답변으로 내놨다.

하지만 보존녹지지역(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하면 재산세 50% 감면 등 세급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매수 청구제도와 손실보상 평가 금액 등 공원보다 더 강한 행위제한을 받아 공원에 민간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순천의 경우 삼산공원 1개소, 봉화산공원 2개소 등 3개 지역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향림·매산·봉화산공원 등 나머지 공원에 광주광역시와 같이 2단계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광군, 영농 전 토양 검정 실시 해줄 것 당부

비료 넣기 2달 전 의뢰

영광군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발맞춰 그 기반이 되는 토양검정을 영농 전에 실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토양검정은 불필요한 비료 시비를 줄이고 작물의 균형 있는 생육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토양검정 항목은 산도(pH), 유기물, 인산, 칼슘, 칼륨, 마그네슘, 전기전도도(EC), 규산 등으로 군에서는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의 함량을 검정 후 비료 사용 처방서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

토양 시료 채취요령은 검정할 필지의 표면을 살짝 걷어내고 수직으로 15~20cm깊이로 여러 지점을 채취하여 잘 혼합한 후 500g의 토양을 시료봉투에 담고 시료봉투에 농가명, 주소, 지번, 면적과 재배작물 검정목적 등을 유성펜으로 기재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군, '군민과의 공감대화' 개최

오늘부터 24일까지

보성군이 지역 현장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21일 별교읍을 시작으로 1일 3개 읍면씩 24일까지 '군민과의 공감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초도방문 시 수렴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도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낀 점이나 군정발전 방안이 있는 주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우 군수는 "올해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보성 군민과 소통·공감하며 지난해 우리가 함께 목격한 보성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발전과 혁신, 변화하는 보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2019 순천방문의 해' 전국 중·고교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



순천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승격 70주년 기념 '2019 순천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동계 직무연수회장을 찾아 전국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중등교장 500여 명이 참석한 연수회장에서 수학여행 맞춤형 코스

안심수화여행을 위한 이용시설 안전점검 확인서 발급, 순천만국가정원 생태학습 체험장, 순천시의 역사·문화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열띤 홍보활동으로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교육관계자는 "순천은 생태·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먹거리 또한 일품"이라며 "순천에서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며 "돌아가서 교육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아끼지 않았다.

순천시는 또한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낙안읍성 등 전국 최고의 생태와 역사문화 체험학습 여건을 보유한 생태문화도시 이미지를 확산하고, 앞으로 미래 교육 관광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잠재적 관광수요층인 청소년과 전국 교육지원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유치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순천시 관광과 채금복 과장은 "제정지원이 가능한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민간 여행업체가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순천=황경석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3투기장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그동안 용지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던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가 진행한 '광양항 3단계 투기장'만 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

이에 따라 공사는 2029년까지 여수공항 전면에 위치한 318만㎡ 규모의 매립지에 3,7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복합물류지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미래신소재, 복합첨단산업, 복합물류제조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이를 통해 1만9,000명의 고용 유발과 940만톤의 신규 물동량 창출 효과까지 예상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수국가산업단은 5,123만㎡ 면적에 283개 기업, 2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액이 66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종합석유화학단지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 가능한 용지가 부족해 일부 기업이 타 지역으로 신

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감안해 3단계 투기장 개발에 나선 공사는 2029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단계 부지가 공급되는 2024년부터는 여수산업의 용지 부족 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 사업진행을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양시, 논 타작물 재배시 ha당 최고 430만 원 지원

벼 재배면적 전년 대비 99ha 감축 목표...6월 28일까지 접수

광양시는 쌀 과잉문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소득 작물 발굴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최고 4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 99ha 감축을 목표로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영농교육, 읍면동 이장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법인으로 1,000㎡ 이상의 면적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

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작물별 전환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ha당 조사료는 430만 원, 두류는 325만 원, 일반작물은 340만 원, 휴경은 28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다만, 수급불안 및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제외된다.

지자체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도 올해 다른 작물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정받는다.

단,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희망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오는 1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해당서류를 작성해 마을대표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유미자 친환경농업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적절한 벼 재배면적을 유지하는 한편, 고소득 작물로의 전환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명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